

“열정·도전 정신 본받아… 비즈니스·창업 생태계 발전 이루길”

신격호 롯데 청년기업가 대상

롯데장학재단, 유망 스타트업 발굴 내달 접수, 예선·본선 후 11월 결선 대상·최우수상 등 18개 팀 선정 수상자들에 1억 상당 지급 예정

“청년 기업가들이 신격호 명예회장의 정신 중 가장 본받았으면 하는 건 열정과 도전 정신이다.”

이승훈 롯데복지재단 이사장의 말이다.

23일 롯데장학재단은 서울 잠실 신격호 기념관에서 ‘제1회 신격호 롯데 청년기업가 대상’ 개최에 앞서 기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신격호 롯데 청년기업가 대상’은 유망한 스타트업 인재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롯데장학재단의 신규사업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장혜선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이승훈 롯데복지재단 이사장, 정유신 서강대(경영학)교수, 이병찬 AC패스파인더 대표, 황조혜 경희대(호텔관광대학)교수 등이 참석했다.

현장에서 장혜선 이사장은 “재단을 설립하신 외조부의 성함을 덧붙여 여러 사업을 이어 나가고 있다”며 “자신의 재능을 바탕으로 새로운 비즈니스를 개척



장혜선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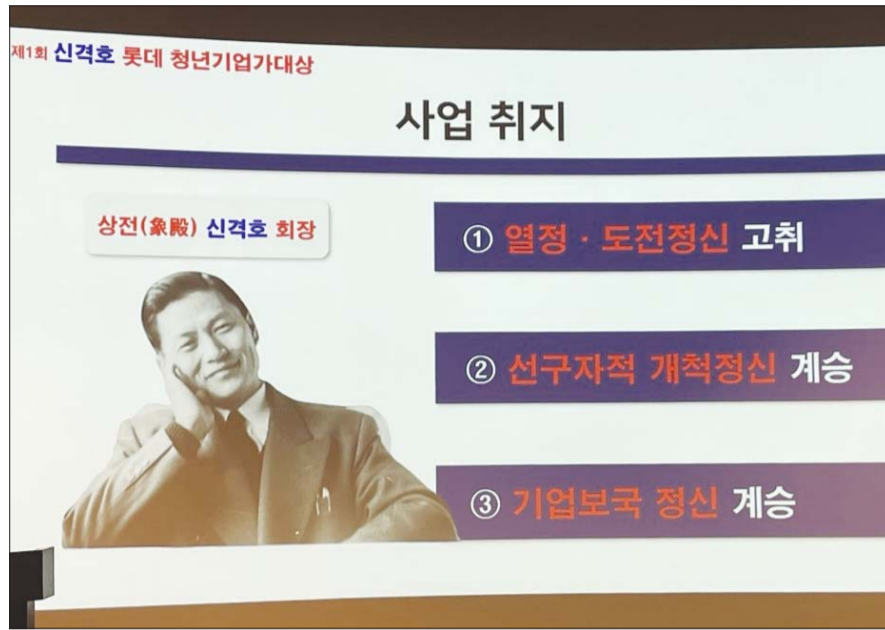
하고 나아가 창업 생태계의 발전을 이루길 응원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유신 서강대학교 경영학 교수의 축사가 이어졌다.

정 교수는 “이번 ‘신격호 롯데 청년기업가 대상’은 고신격호 명예회장의 선구적인 기업가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신격호 명예회장은 1세대 창업가로 한국의 성장을 이끈 주인공이다. 이에 현세대 기업가들이 이 같은 기업가 정신을 계승할 필요가 있다”며 세 가지로 이를 보충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해외 글로벌 창업가 ▲경기와 한계의 경계를 허물고 시대정신을 앞서나간 혁신의 기업가 ▲최고가 되기 전까지 한우 물만 판 전문가 등 열정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세계 최대 롯데타워, 호텔 등을 구축할 수 있었다며 축사를 마무리했다.

재단은 지난 4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기업가정신재단, AC패스파인더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재단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신격호 롯데 청년기업가 대상을 공동주최하고, AC패



신격호 롯데 청년기업가 대상 사업취지 PPT.

/최빛나 기자

스파인더와 한국기업가정신재단이 대회를 주관한다.

오는 8월 재단 홈페이지에서 접수를 시작해 예선과 본선을 거쳐 11월에 결선이 열린다. 본선과 결선 진출팀에게는 전문성 강화를 위해 온라인 멘토링의 기회가 부여된다.

참가분야는 두 분야로 식품, 유통, 화학, 건설, 관광, 서비스, 금융분야인 1분야와 과학기술기반, 임팩트 등 2분야이며 모든 팀에는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한 과학 기술 분야의 스타트업 ▲사

회적 가치 창출과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겸비한 스타트업 ▲글로벌 시장의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전했다.

심사위원은 분야별 기업임원 14명이며 수상자들에게는 대상 각 1200만원, 최우수상 각 700만원, 우수상 각 400만원, 장려상 각 200만원, 특별상 150만원 등 1분야와 2분야 총 18팀에게 약 1억원 상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中, ‘저가 수출’ 장기화… “韓, 프리미엄·고부가 제품 전환 필요”

무협, 中 저가 수출이 미치는 영향 중국 수출단가 16개월 연속 하락 위안화 약세에 수출 채산성 양호

최근 중국상품의 수출단가 하락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저가 수출이 안정된 수출 채산성을 바탕으로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 우리 기업의 대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23일 발간한 ‘중국 저가 수출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달러 기준 수출단가는 2023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16개월 연속 낮아졌다.



특히, 지난해 8월에는 중국의 수출단가가 전년동월비 13.9% 하락하며 통계가 집계된 2000년 이래 월간 기준 최대

낙폭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 1~4월에도 수출단가가 전년 동기비 10.2% 하락하면서 주요국 대비 하락폭이 컸다. 같은 기간 수출물량은 8.7% 늘어나 중국의 저가 수출 밀어내기 더욱 확실해지는 양상이다.

일반적으로 수출단가가 하락하면 수출물량은 늘어날 수 있지만 수출 채산성은 악화된다. 하지만 중국은 수출단가 하락에도 위안화 약세와 낮은 생산자물가를 바탕으로 수출 채산성이 양호한 상황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4월 기준 중국의 수출채산성지수는 기준치(100)를 넘어선 107.4로 2017~2021년 평균인

99.8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중국의 생산자물가지수(2022년 10월 ~ 2024년 6월까지 21개월 연속 하락세다. 보고서는 중국이 안정된 수출 채산성과 저렴한 제조원가를 바탕으로 저가수출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중국의 저가 수출은 우리 수출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특히, 중국의 저가 수출 확대에 해상운임이 상승하고 선박 확보가 어려워짐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물류 애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반도체·컴퓨터·무선통신기기 등 항공운송 비중이 높은 5대 IT품목을

제외한 우리 수출의 88.8%는 해상 운송에 의존하고 있어 중국의 저가 수출 확대에 따른 운임 상승 영향을 고스란히 받고 있다.

도원빈 무협 수석연구원은 “풍부한 광물 자원 기반의 수직계열화와 거대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한 중국 기업의 수출단가 인하는 이어질 것”이라며 “우리 기업은 주요국의 대중국 견제 조치 속에서 기회를 탐색하는 한편, 우리가 기술우위를 점하고 있는 프리미엄·고부가가치제품을 중심으로 수출 포트폴리오를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배추 등 농산물 가격 내리니… 생산자물가 7개월 만에 하락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지수 발표 지난달 생산자물가 119.19 기록

배추, 참외 등 농산물 가격이 내리면서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가 7개월 만에 하락했다. 생산자물가는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반영되는 만큼 7월 소비자물가가 둔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는 119.19(2020년=100로 한달 전과 비교해 0.1% 하락했다. 생산자물가지수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까지 6개월 연속 상승하다 지난달 하락세로 전환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2.5% 올라 지난해 8월 이후 11개월 연속 상승했다.

품목별로 보면 농림수산물 물가가 전월 대비 2.8% 하락했다. 축산물(2.5%)이 올랐으나 농산물(-6.6%)과 수산물(-0.8%)이 내렸다.

세부적으로 축산물 중 돼지고기(12.4%)가 한달 전과 비교해 오르고, 농산물 중 배추(-45.3%)와 참외(-28.1%)가 내렸다. 수산물은 고등어 가격이 39.7% 떨어졌다.

공산품은 보합을 나타냈다. 음식료품(0.2%)과 컴퓨터·전자및광학기기(0.1%)가 올랐으나 석탄및석유제품(-0.1%) 내렸다. 컴퓨터·전자및광학기

기 중 플래시메모리는 2.6% 오르고, 휘발유와 제트유는 각각 4.4%, 6.1% 내렸다.

서비스는 음식점및숙박서비스(0.3%)와 운송서비스(0.2%) 등을 중심으로 0.1% 상승했다. 햄버거, 피자, 치킨 등 주 외식전문점은 2% 오르고 국제항공여객도 0.9% 올랐다.

전력·가스·수도및폐기물은 산업용 도시가스(-2.9%) 내리면서 전월대비 0.1% 하락했다.

한편 국내공급물가지수는 124.77로 지난달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원재료(-1.6%)가 내렸으나 중간재(0.2%), 최종재(0.1%)가 오른 영향이



22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생산자물가가 5개월 연속 상승했다. 4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118.82)보다 0.3% 높은 119.12(2020년=100)로 집계됐다. /뉴시스

다. 공급물가지수는 국내에 공급(국내 출하 및 수입)되는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원재료, 중간재, 최종재의 생산단계별로 구분하여 측정하는 지수로, 생산자물가지수에 수입물가지수를 결합해 산출한다.

생산자물가지수에 수출물가를 포함한 총산출물가지수는 122.53으로 농림수산물(-2.6%)이 내렸으나 공산품(0.4%)등이 오르며 전월대비 0.2% 상승했다.

/나유리 기자 yu115@